

투데이 칼럼

관계인구 100만 시대 여는 열쇠 '정읍문화의 전당'

지방소멸은 더 이상 통계청의 보고서 속 수치나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정읍을 비롯한 수많은 지방 도시는 상주(常住)인구 감소라는 가파른 절벽 앞에 서 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출생률을 높이고 전입유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거대한 인구구조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닌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다. 정읍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정읍을 사랑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지역에 경제적·문화적 기여를 하는 '관계인구(Relational Population)'에 주목해야 한다.

관계인구는 주소지가 아닌 '정서적 유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은 지역의 정체성과 그곳에서 비롯되는 자부심이다.

필자는 2021년 제8회 정읍시의원 시절, 그 관계의 중심이자 정읍의 명예와 정신을 집약한 인문학적 거점으로 '정읍문화의 전당(井邑文化殿堂)' 건립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정읍의 정신과 명예, 공동체의 기억을 집약할 상징적 플랫폼이다.

이 전당은 철저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한 '정읍 인물사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물의 선별은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도 민족정기를 훼손하지 않고 정읍을 빛낸 인물들을 향일운동, 문화예술, 교육학문, 산업경제 등 분야



정 상 섭

전 정읍시의회 차지행정위원장

별로 체계화해야 한다.

이들의 행적을 미화나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해 후세에 전하는 일은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이 인물들의 삶은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이정표인 '멘토'가 되고, 타지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그 후손들에게는 고향과 다시 연결되는 강력한 정신적 뿌리가 된다.

사람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인물 서사(敘事)는 관계인구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런 힘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여자에 대한 예우가 필수적이다.

정읍에는 이미 관계인구가 지역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있다.

고(故) 임태홍 회장이 설립한 대상그룹은 기업의 성장을 고향의 문화와 복지로 환원하며 품격 있는 관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정읍시립도서관(현 정읍시립미술관), 정읍살내체육관, 정읍의 상징인 정읍사 망부상 일대 문화 공간 조성은 이러한 헌신적인 기부로 가능했다. 정읍문화의 전당은 이러한 기부자

의 역사를 정성껏 기록하고 감사하는 공간이자, 시민과 관계인구가 만나려는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한다.

기부자의 명예를 존중할 때, 비로소 제2, 제3의 대상그룹이 탄생할 토양이 마련된다. 이는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관계인에게 '정읍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기도 하다.

건립 방식 역시 시대정신과 경제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건물을 새로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도심의 유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건립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선택인 동시에, 공동화된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전략이기도 하다.

넓은 공간에 정읍의 정신과 인물의 숨결을 담아내는 과정 자체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작업이 된다.

이러한 공간 재창조는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인권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진다.

현대 사회에서 관계는 물리적 거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인물사관'과 '관계인구 멤버십'을 결합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정읍의 인물 자선에 접속하게 하여 정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

또한 정읍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하고,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예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예산 확보 역시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과 출향인이 참여하는 네이밍 도네이션(Naming Donation)과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형 지정 기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의 이름을 전당의 벽면이나 벤치, 조각품 등에 새겨주는 방식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보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정읍인임을 자랑스러워할 때 타지의 관계인구 역시 그 자부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정읍문화의 전당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다. 관계인구를 키우는 인문학적 엔진이며, 지방소멸 시대를 돌파할 전략자산이다.

정읍문화의 전당 건립은 관계인구 100만 시대를 향한 원대한 상상이자, 정읍의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담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숫자로 집계되는 인구가 아닌, 마음으로 연결된 100만 정읍인이 정읍의 미래를 지탱할 것이다.

사설

현혈 오픈런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존독쿠키'를 현혈 사은품으로 주자, 이른바 '현혈 오픈런'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쉽게도 두존쿠 수급이 어려워지자, 혈액 수급이 다시 어려워진 곳도 나오고 있다. 울산시청 앞마당에 현혈 버스가 찾아왔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간이철대에 누워 있다.

팔을 걷어붙인 이들 대부분은 시청 직원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업무시간에 짬을 낸 것이다. 사실 찾아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선 힘들기도 하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울산에서 현혈을 한 사람은 8천백 명이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매달 1만 명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방학을 맞은 겨울철마다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에는 현혈 기념품으로 인기 디저트인

두바이존독쿠키, 이른바 두존쿠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준비한 34개가 하루 만에 동난 뒤, 혈액 재고는 다시 적정 수준인 5일 치 이하로 떨어졌다.

울산 지역 혈액 재고량은 4.1일 수준으로 특히 AB형은 2.6일로 적정 보유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현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울산혈액원은 특히 실 연휴 전후 발생하는 응급수술을 대비한 혈액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현혈 동참을 부탁했다.

갈수록 혈액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정부는 혈액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혈액 제공자의 확대 범위를 늘려나가는 홍보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빗썸 초유의 오지급 사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벤트 당첨금으로 고객들에게 2천원을 입금한다는 게, 직원 실수로 2천 '비트코인'을 보내버린 것이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코인 규모가 무려 60조 원, 일단 팔고 보자는 일부 이용자들이 저절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뒤얽리며 한때 아수리장을 겪었다.

지난 6일 저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매물이 쏟아지며 비트코인 시세가 곤두박질쳤다. 급매물을 제공한 원인으로, 빗썸의 전산 실수였다.

이벤트 선물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000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단위 2000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는 게 빗썸 설명이다. 비트코인 62만 개 - 우리 돈 60조 원 대가 전산상 지급됐고 249명이 이걸 받아 이 중 일부는 내다 팔았다.

빗썸은 고객 거래와 출금을 차단해 99% 이상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약 130억 원어치는 수습하지 못하고 황당한 사태의 파장도 가려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원은 빗썸이 자체 보유할 물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긴급 대응번호 구성됐다. 대응번호는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거래소까지 가상자산 보유, 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 회의에 참석한 뒤 보상안을 추가로 냈다. 시세가 급락했을 때 저가에 비트코인을 판 고객에게 매도차익 전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제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비와 대출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려 '즉시 대출, 무서류·무방문, 신용 무관'을 내세운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도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67건, 2024년 98건, 2025년 11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액 급전이 필요한 시민을 겨냥해 접근하는 수법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범죄가 단순한 금전 피해에 그치지 않고, 채권 추심

사회 곳곳에 파고든 고금리 불법사금융

을 방자한 협박과 일상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불법사금융은 대개 SNS, 문자메시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접근합니다.

"오늘 바로 입금, 신용점수 영향 없음, 서류 없이 가능" 같은 문구로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고금리를 요구하고, 상환이 조급단 늦어져도 폭언·협박·지인 연락 등 불법 추심으로 압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자동 메시지·상담, 가짜 후기와 허위 계정 운

영 등으로 범죄 수법이 정교해져, 정상 금융과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상당수는 "스스로 해결하려다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혼자 견딜 이유도 없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 또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창구(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고,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현섭 군산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위

이미 돈을 빌렸더라도 불법 계약·채권추심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와 상담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당장 해결'이라는 말은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 깊은 위기로 끌어들이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정책금융, 서민금융 지원제도, 지자체 상담 창구 등 합법적 도움의 길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검증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 about supporting journalism and providing hop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